

ZOOM
-IN국내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진출 현황

-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로 중금리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redit Bureau: CB) 진출이 활발하게 논의 및 진행 중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가 공급되면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므로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 조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금리의 대출 제공이 가능
-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신설되었으며 절대적 겸업 금지조항의 삭제로 신용평가사 이외의 기업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수익 다각화 및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라이선스 취득절차를 진행 중이며 빅테크 기업도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을 준비
- 향후 다양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공급 및 중금리대출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신용평가정보를 연계하여 대출 원스톱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 니즈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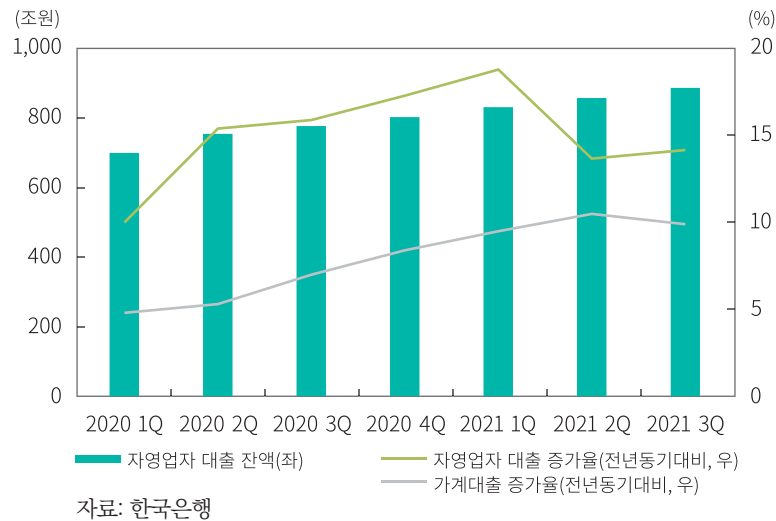
-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로 중금리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¹⁾(Credit Bureau: CB) 진출이 활발하게 논의 및 진행 중
 - 국내 자영업자 대출²⁾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해 왔으며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9년 4분기 기준 10.1%였으나 2020년 2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1년 1분기 18.7%에 이르렀고, 2021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13.7%, 14.2%를 기록하며 상승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
 - 자영업자 신용대출도 2020년 2분기 이후 비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 자영업자 신용대출 증가율과 비자영업자 신용대출 증가율은 각각 18%, 11.2%를 기록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의2)으로 주요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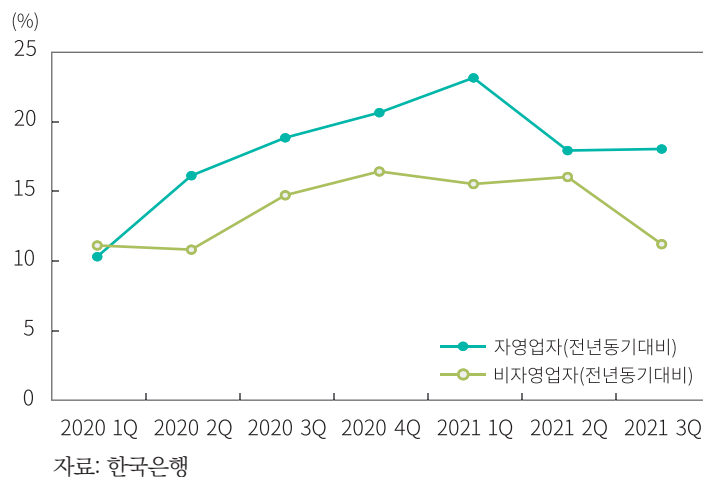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계하여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중은 65% 수준

- 금융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제공하여 개인사업자를 중금리대출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관련 시장을 개척 및 확대하려는 사업에 관심이 증가
-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정책,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일부 기업들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에 진출 중
 -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 형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³⁾해왔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통해 중금리대출의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평가사 이외의 기업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설립이 가능

〈그림 1〉 자영업자 대출 잔액,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및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그림 2〉 자영업자 및 비자영업자 신용대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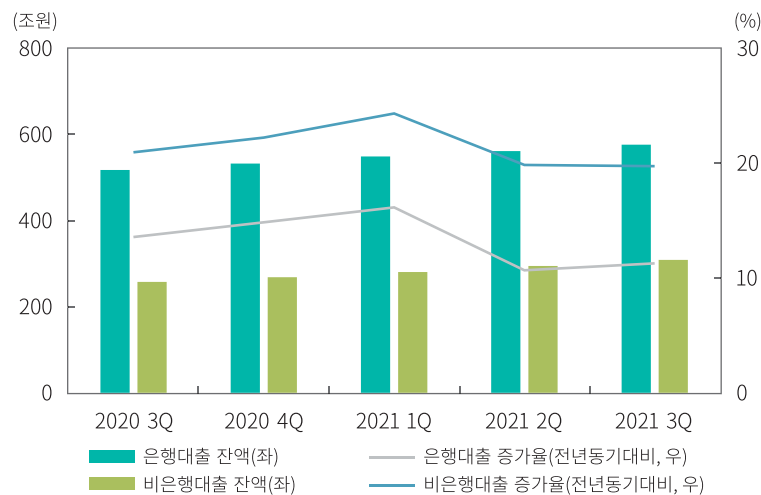
3) 금융위원회는 2016년 1월 28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 다양화, 신용평가 체제 개선,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보증부 사잇돌대출, 민간중금리 대출의 2원적 지원 체계를 마련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가 공급되면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분석되므로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 제공이 가능

—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비재무정보를 활용 및 관리하는 비용, 건전성 악화 우려, 평판 리스크 등으로 금융실적 위주의 신용평가 체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비은행권에서도 담보·보증⁴⁾에 기반한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은 7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1년 3분기 기준 은행권, 비은행권이 각각 11.3%, 19.8%를 기록하였으며 은행에 비해 고금리·저신용 차주가 많은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
- 개인사업자의 비은행권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9년말 74.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2월 77.5%를 기록⁵⁾

〈그림 3〉 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개인사업자신용평가는 금융 및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재무·비재무 데이터와 외부 제휴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중·저신용자 및 금융 이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신용 리스크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

-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맹점 매출, 상권 정보, 업력, 결제정보, 단골 고객, 부동산 등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사 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

4) 부동산·예적금·유가증권·어음 담보대출, 지급보증 및 농수산정책자금 등 정책성 자금 실행을 포함

5) 서정호, 2021,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30권 11호.

□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2020. 8. 5)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신설되었고 절대적 겸업 금지조항이 삭제되면서 신용평가사 이외의 기업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개인신용평가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및 신용조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업무별 진입규제를 완화⁶⁾
 - 기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3개의 포괄적 업종으로 분류
 - 개인신용평가업에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전문CB)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신설
-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절대적 겸업 금지 제한을 폐지
 -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용평가사는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조사업무 등 일부 업무 외에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었음
 - 2020년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사도 데이터 분석·컨설팅, 가명·익명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 등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익 다각화 및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카드사,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라이선스 취득절차를 진행 중이며 빅테크 기업도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

-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경쟁 및 조달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신용판매 부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환경에서 중금리대출 시장을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분석하고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카드사 중 2개사가 본인가를 획득
 - 2021년 9월 신한카드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본인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2월에는 KB국민카드가 본인가를 획득하였으며 BC카드도 예비 허가 이후 본인가 대기 중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예비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롯데카드는 NICE신용평가와의 제휴를 맺고 롯데카드가 보유한 가맹점, 매출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등급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인가를 추진할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진출을 모색 중이며, 카카오뱅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데이터기반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중금리혁신법인)⁷⁾이 예비 허가를 받았으며 본인가 신청이 예정

6) 기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조회업의 경우 50억원,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30억원의 자본금이 요구 되었으나,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세분화 된 업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은 50억원, 비금융전문신용평가업은 20억원 또는 5억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50억원, 기업신용조회업은 20억원 또는 5억원의 자본금이 요구됨

7) 한국신용데이터, 카카오뱅크, SGI서울보증, KB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전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로서는 처음으로 예비 허가를 획득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비즈니스 전략은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고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것⁸⁾
 -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은 정책금융인 '사잇돌대출'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토스뱅크에서 2022년 3월에 소상공인 정보가 반영된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체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공하였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의 적절한 대출 상환능력 평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리스크 관리 및 중금리대출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 빅테크 기업에선 토스가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평가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비금융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경쟁 신용평가사와 차별화 전략을 추진
- 비금융 플랫폼인 온라인 배달앱, 온라인 창업을 돕는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인사업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특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할 계획
 -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개인사업자대출 데이터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화시키는 작업에 활용 가능

□ 향후 다양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공급 및 중금리대출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신용평가 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대출 원스톱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 니즈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

- 금융기관 및 빅테크 기업에서 축적한 비금융데이터 및 제휴업체의 데이터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신용평가 서비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양질의 데이터와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대출 상환 가능성과 위험을 얼마나 정교하게 판별하는지가 출범 이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의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활성화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정 대출 금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민간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향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정보에 마이데이터를 연계하면 개별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특화된 맞춤형 대출상품, 마케팅 및 컨설팅, 상권 분석 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

연구원 한아름

8)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인 TSS(Toss Scoring System)를 개발하여 중·저신용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중·저신용과 금융정보 부족 고객 특화 CSS를 새로 개발하여 대출 상품에 적용,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카카오머스·카카오모빌리티 등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정보를 분석해 CSS를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